

적응할 듯 적응하기 어려운 일본 정착기

김진아 _ 서울신문 일본 특파원

...

일본에 온 지 약 3달 만인 12월 13일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서울신문 도쿄지국 사무실에 인터넷 설치를 완료했다. 인터넷 설치를 신청한 지 한 달 반 만이기도 하다. 도코모 설치기사가 사무실에 와서 모뎀을 깔아준 뒤 노트북에 와이파이가 연결된 그 순간 테더링으로 버텼던 지난 시간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과연 일본”이라는 반응부터 시작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느냐”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팩스와 도장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를 상징하는 나라답게 행정 처리든 뭐든 느리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각오하고 있었음에도 직접 겪어보니 할 말을 잃게 됐다.

인터넷 설치를 끝으로 일본 정착은 3개월 만에 사실상 끝났다. 기자 생활 목표였던 일본 특파원이 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임명된 뒤 일본에 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고 힘들게 일본에 왔더니 정착하고 취재 활동을 하는 건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이었다. 그 험난한 과정을 정리해 글로 옮기자니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다. 이 경험을 민망하지만 공개하는 이유는 일로든

www.kci.go.kr

유학으로든 일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일본의 쇄국정책이 풀릴 때 내 경험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지난 9월 중순 일본에 특파원으로 입국했다. 취재 목적의 특별 비자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서약서와 일본에 입국했을 때 내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 책임져줄 일본인 보증인의 서약서 등이 필요했다. 그 서약서의 빈칸을 꼼꼼히 채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제출하고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보통은 한 달 길게는 약 두 달 걸린다. 방역 대책 때문에 외무성, 법무성을 비롯해 후생노동성 등 여러 관계 부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말로만 들었던 서류로 대표되며 절차를 지루할 정도로 지키는 일본을 체험하게 됐다. 이때부터 어느 정도 한국의 속도와 융통성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이 미션을 클리어 하면 비자는 빠르게 나온다. 그 후 필요한 것은 실제 일본에 필요한 입국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일본 입국 시 필요한 것은 앞서 허가받은 서약서 서류와 입국 3일 전부터 실시한 PCR 검사 결과 등이다. 그리고 격리할 숙소를 정하는 것과 교통수단 등을 고르는 일이었다. 도쿄 비즈니스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 웬만한 숙소는 격리를 받아준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니 한국처럼 격리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느냐고 일말의 기대를 갖고 물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불가였다. 예외란 적용되지 않는 나라가 곧 일본임을 그때부터 몸소 느꼈다.

우여곡절 끝에 꿈에도 그리던 나리타공항에 도착했고 공항 문을 나서기까지 약 3시간이 걸렸다. 3시간이나 걸리는 이유는 나리타공항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했고 그보다는 격리 기간 사용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검역 관계자가 설명서를 들고 앱의 기능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해줄 일인가 싶다가도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다.

어렵게 검역을 뚫고 격리 숙소로 정한 히가시긴자역 근처의 비즈니스호텔에 도착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만 14일의 격리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괴로웠다. 일본의 공항 검역은 꽤 철저했는데 격리 정책을 보면 그보단 느슨했다. 식사를 해야 했기에 편의점을 가는 것은 허용됐다. 유일하게 허용된 몇십 분이 그렇게 소중한 줄은 몰랐다. 하루에 두 번 GPS를 켜놓은 채로 앱을 통해 위치 체크를 하고 AI를 통해 걸려오는 전화로 내가 숙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보이게끔 영상 녹화를 한다. 누군가는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밖에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위치 체크 등의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또 내가 잘못해 문제를 일으켜 일본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최대한 지킬 건 지키자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다.

허술한 부분도 있었다. 호텔 내 조식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허용됐다. 호텔 직원에게 격리 중임에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는 듯 곤란해하더니 방역 수칙만 지키면 괜찮다고 했다. 격리인 듯 격리가 아닌 상황이었다. 아예 외출이 허용되지 않은 한국과 차이가 컸다.

격리 기간 중 가장 힘든 건 숙소 그 자체였다. 일본의 비즈니스호텔을 이용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무척 좁다. 그리고 먼지가 많고 창문은 틈새로 열리는 게 전부였다. 또 대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시끄럽다. 며칠 동안 이용하는 데 그치거나 밖에 나갈 수 있다면 잠시 이런 곳에 머물러도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14일의 격리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최악의 장소였다. 최대한 비용을 저렴하게 하겠다고 그 호텔을 고른 건 잘못이었다. 교통

이 좋은 이유로 골랐는데 생각해보면 격리 중에 교통수단 이용할 일이 없는데 쓸모없는 일이었다.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최근 다른 언론사에서 특파원으로 오는 선배들에게 조언해줬다. 숙소는 제발 돈을 더 쓰더라도 넓고 창문이 열리는 곳으로 고르시라고.

그렇게 괴로운 격리 생활을 마치자마자 일본 정착을 위해 필요한 ‘3종 세트’에 도전했다. 집 구하기,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등이다. 일본에서 살아본 분들은 모두 알겠지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집 주소가 필요하고 집을 구하려면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며 은행 계좌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피비우스의 떠나 다름없었다. 먼저 해외 로밍을 해놓은 한국의 휴대전화를 제시했고 일본인 보증인을 지정해둔 뒤 부동산 업체가 신원이 확실한 외국인이라고 사정사정한 끝에 부동산 관리회사의 심사를 통과했다. 사실 임대 신청을 두 곳을 했는데 하나는 떨어졌다. 이유는 외국인이라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재직증명서, 특파원 파견장,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거절당해 기분이 나빴지만 거기서 일본의 배타성을 느꼈다.

집도 구했고 구약소(구청)에 가서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주소도 등록했고 이를 가지고 도쿄모에 가서 휴대전화도 개통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상황에서 정착의 끝판 왕이라고 꼽히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은행 계좌 개설이 워낙 까다로워 많은 사람이 우체국 혹은 SBJ 등을 이용하는데 서울 본사에서 취재비 송금 시 일본은행 계좌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각오하고 사무실 근처 미츠비시UFJ 지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돼 처음으로 일본인과 말다툼을 했다. 일본식 행정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신규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더니 계좌 개설은 창구가 아닌 별도의 방으로 가서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화기로 직원과 통화하며 모니터

를 통해 신청 상황을 확인하고 스캐너를 통해 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스캔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으로 최대한 대면을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나는 외국인이고 은행의 전문용어를 수화기를 통해 듣고 설명하는 게 어렵다고 창구 개설은 안 되겠느냐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원칙이라 어쩔 수 없다”였다.

역시 우려한 대로 계좌 개설을 신청한 지 한 시간이 지나도 계좌는 개설되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내가 외국인이라고 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고 화를 냈다. 난감해하는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창구로 오라고 했다. 그 창구에서 15분 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될 걸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혀탈했다. 더 혀탈한 것은 창구에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계좌 개설만 안 됐던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엔 서툴었던 일본어도 그때는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속사포로 터져 나왔다. 역시 사람은 공지에 몰리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면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는 듯하다.

예상외의 복병이었던 인터넷 개설이 한 달 반이나 걸린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한국이야 KT든 SKT든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와서 개통이 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신청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현장조사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 설치 기사가 와서 모뎀을 설치해준다. 한국이라면 한 시간도 안 될 일을 왜 일주일 걸려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 요즘 인터넷 신청 혹은 수리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 달 반이나 걸린다는 게 도쿄모 측의 설명이었다. 재택근무 전에도 집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지 않나 싶었지만 그런 걸 따져봤자 무의미하다는 걸 이미 체험했기에 체념했다. 그동안 와이

파이가 되는 카페에 가거나 테더링을 이용해서 기사를 썼다.

일본을 경험한 지 3개월이 겨우 지난 상황에서 일본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설부르고 알팍하게 보일 수 있겠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겪은 일본은 타인에게 친절하면서도 배타적이며 알고 있던 이상으로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발표했을 때 일본에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나 사업가 등은 경악했지만 일본 국민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다. 이런 일본에 대해 한국인들의 감정은 매우 좋지 않다. 느린 행정 처리, 서류 왕국, 현금의 나라 등 아날로그 문화 등에 대해 비꼬며 조롱이 가득하다. 하지만 한국과 다른 일본에 대해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들과의 차이를 알고 어떻게 함께 가면 좋을지 대안을 만드는 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제 앞으로 3년 임기의 일본 특파원으로서의 고민이기도 하다.